

# 담양군, 금연 환경조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지속발전 및 활용 가능성 등 평가항목 전반 고루 높은 평가 받아

### 김순복 보건소장 "앞으로도 맞춤형 금연사업 추진 건강증진 노력"

담양군은 '2020년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이 제출한 금연 환경조성 우수 사례 '함께 만들어요! 담배 없는 생태도시 담양'은 사업 수행의 효과성,

지속발전 및 활용 가능성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먼저 관내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걷기 동호회와 연계한 금연 서포터즈를 결성해 흡연의 폐해와 금

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또한 전남금연지원센터, 씨젠의료재단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인 금연 환경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금연 4주 유지자 대상 중앙표지자 검사 지원과 금연 중도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재등록 추진 프로그

램을 통해 6개월 금연성공률은 전년도 대비 11.6% 상승, 금연클리닉 재등록은 전년도 대비 2.7% 상승하며 사업 수행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의 금연결심 및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교육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첫걸음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마을교육자원 탐방프로그램 운영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유근기)이 지난 22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마을교육자원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곡성선진감기차마을 내에 위치한 로즈카카오체험관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콜릿 문화를 통해 세계 역사

의 흐름을 배우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마을교육자원 탐방프로그램은 교직원들이 지역 내 산재되어있는 마을자원을 아이들의 교과 및 체험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운영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 장성군, 푸드플랜 연계 공모사업 잇단 선정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연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53억9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군은 광주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장성군-농협' 간 상생협력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상무대 등 군부대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삼서농협에 저온유통시설과 직거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비대면 판로 확대 주력...소비문화 변화에 대응

### 택배비·포장재 지원 사업 규모 확대...안정적 유통기반 구축

화순군이 온라인 쇼핑 문화와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응해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대면 농산물 판로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화순군은 그동안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 기반 구축, 농산물 판로 다양화와 확대를 위해 택배비와 포장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와 비대면 소비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군은 4개 택배비 지원 사업, 4개 포장재 지원 사업에 총 10억7500

만 원을 투입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다.

TV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쌀을 판매하는 화순농업협동조합 등 3개 업체가 대상인 '화순 쌀 택배비 지원사업' 규모가 가장 크게 늘었다. 직거래 장터와 비교해 효율성이 높고 단시간에 높은 판매율이 보장된 TV 홈쇼핑 판매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해 화순 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500만 원을 지원했던 화순 쌀 택배비 지원금 규모를 올해는 2억 원으로 1억5500만 원을 증액했다. 현재까지 2억 중 1억2000만 원을 집행해 온라인 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뿐 아니라 농가를 지원하는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도 있다.

지역의 1300여 쌀 생산 농가들은 약 9000명의 대도시 소비자들과 약 9만 건의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에 군은 매년 1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1건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억1100만 원을 지원한다.

복숭아, 파프리카 등 화순 지역의 8개 농특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고객 확보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다. 고정고객 확보 택배비는 1건당 1400원씩, 매년 2억 원을 편성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 1억5000만 원이었던 집행액이 올해는 10월 기준 집행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전라남도도와 함께 전남 쌀 유통비를 지원하는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에는 매년 9000만 원

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등 타시·도의 평생 고객 확보와 타시·도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무농약, 유기농 쌀을 대상으로 해 미래 화순 쌀에 대한 이미지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홈 쇼핑,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쌀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와 농가에 박스 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화순 쌀 포장재 지원 사업'(1억1500만 원), 화순 8대 농특산물 연합회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에 포장재 지원사업'(3억 원),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농산물이 대상인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3000만 원) 등을 펼쳐 생산비 절감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 나주시, 안성현 탄생 100주년 온라인 기념음악회 방영

### 오늘 나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하이라이트 영상 송출

나주시가 지역 출신 천재 작곡가 안성현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념 음악회를 선보인다.

나주시는 오는 30일 제26회 나주시민의 날과 연계해 나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안성현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안성현 선생(1920. 7. 13. ~ 2006. 4. 25.)은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태생으

로 가야금 산조 명인 안기옥 선생의 아들이다.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 등 민중음악에 큰 획을 그은 천재 작곡가로 당대 명성을 떨쳤다.

이번 음악회는 선생의 음악적 역량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방송은 총 20분 분량으로 음악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 제작됐다. 전체영상은 내달 별도로 게시될 예정이다.

가수 안치환, 북한출신 허영희 교수, 나주시립예술단, 시민오케스트라, 남평읍 음악동아리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 화려한 무대 공연으로 안방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감동의 음악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